

2022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2.12.27.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4	2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이희중 위원, 류용환 위원, 임재근 위원, 황혜진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4	-	4	12	-	12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2	-	-	12

*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전월(11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지역 화폐 보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폐지한다는 뉴스를 다루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정부의 국비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후속 보도로 관심을 높이면 어떨지	현재 대전시는 캐시백을 줄이면서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아직 폐지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 지역경제 선순환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준비할 예정 <22. 12월 조치>	'22.11월
교양	<참참참> 대전지역의 소재인 칼국수를 소재로 웹 드라마를 만든 것은 참신한데 내용에 젊은 남녀의 연애이야기만 부각되고 칼국수는 부각되지 않음	젊은 감각으로 웹 드라마를 제작하다 보니 핵심소재인 칼국수가 많이 부각되지 않은점에 동의함. 제작진에게 관련 의견을 전달 예정 <22. 12월 조치>	'22.11월
교양	<지역소재 웹 드라마 제작> 지역의 명소를 소재로 하는 웹 드라마 제작이 다음에도 이어지는지 어떤 소재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	현재 지자체별로 맞춤형 시놉시스는 준비되어 있지만 지자체와 매칭을 해서 제작 할지는 미정인 상태로 제작 준비는 계획하고 있음 <22. 12월 조치>	'22.11월
교양	<시대공감> 라디오 대표 시사프로그램인데 시간이 30분이다보니 다양하게 주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간추린 뉴스 등 다양하게 다뤄보면 어떨지?	1시간으로 편성을 하고 싶어도 그 뒤에 <손에 잡히는 경제>가 워낙 충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서 늘리기는 어렵고 내용상으로 아침뉴스를 요약해주는 부분을 강화할 예정 <22. 12월 조치>	'22.11월
교양	<격렬비열도> UHD 영상, 내용 구성은 너무 좋았는데 실내 인터뷰 장면은 자연 다큐와 어울리지 않았고 팬이갈매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현실적으로 실내 인터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 팬이갈매기 장면은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려던 제작진의 의도가 있음. 추후 다큐 제작시 반영 <22. 12월 조치>	'22.11월
교양	<끼니멘터리> 일반인들의 끼니와 삶을 연결시킨 좋은 프로그램인데 확장성을 가지고 대전MBC 대표프로그램으로 전국 방송이나 계열사 교환 추진하는게 어떨지	끼니멘터리는 현재 지역사 3개사와 교환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사들과도 규격에 맞게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2. 12월 조치>	'22.11월
<게시판> 기타	<AM 방송 휴지 문의> AM방송 휴지는 몇 시에 하는지? 또 휴지 후 6개월 뒤 폐지하는데 그 뒤에는 라디오 채널명을 뭘로 하는지?	AM은 22년 11월 8일 0시부터 운용휴지에 들어감. FM 채널명은 6개월 휴지기간 동안 내부경로를 거친 후 폐지시 채널명 유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 <22. 11월 조치>	'22.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2년 12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덕연구개발 특구협의회	과학기술단체	남/1961 21.05.01~23.04.30
부위원장	이희중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대전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대변	남/1964 21.05.01~23.04.30
위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단체	남/1978 21.05.01~23.04.30
위원	정훈진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67 21.05.01~23.04.30
위원	황혜진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문화단체	여/1977 21.07.01~23.04.30
위원	류용환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남/1960 21.11.01~23.04.30
위원	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인권단체	남/1983 22.03.01~23.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여/1966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남/1977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여/1964 22.05.01~23.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서구청 체육회 선거 보도> 서구청장의 서구체육회 선거 개인 보도에 대한 보도지침을 기자들에게 보낸 건 심각한 문제인데 KBS와 일부지역언론은 나갔는데 대전MBC는 보도가 없어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보도	<보도 영상> 대전시 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을 의결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정치화면을 사용함, 영상을 활용한 좀 더 생동감 있는 화면 구성이 필요	회의록 첨부	○		
보도	<우주항공청 보도> 항공우주연구원 이슈가 뜨거운데 해당 뉴스를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음.	회의록 첨부	○		
보도	<대덕연구개발특구 보도> 대덕특구단지 과학관련 뉴스도 좀 더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 이추남 코너는 다양한 이슈를 취재하면서 시사프로그램 성격을 가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역 이슈를 꾸준히 담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쇼 윤봉길> 주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적절한지 의문이었고 내용면에서도 프로그램이 아닌 예산군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보임. 일회성 프로그램인지 계속 하는 건지도 궁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다큐멘터리와 일반 콘텐츠 격차> 예산과 인력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와 일반 콘텐츠 사이에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회의록 첨부	○		
교양	<격렬비열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이슈가 많은데 격렬비열도를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오염된 바다 장면이 인상 깊었음. 내년에도 UHD화질 다큐 제작해 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2022년 12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ID 제작> KBS 아이디를 보면서 밀양, 부산 등 전국에 위치한 유적지를 드론으로 예쁘게 찍어서 10초정도 보여주는데 가보고 싶었음. 대전MBC도 지자체와 협력해 아름다운 경치를 ID로 제작하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기타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관련> 소통 차원에서 시청자 의견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었으면 함. 무답변도 있던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함. 배너 제목도 시청자 불만처리가 아닌 시청자 의견처리로 변경 요망	회의록 첨부	○		
기타	<홈페이지 인기 클럽 코너> 방송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어 시청자와 거리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 화면에 보이는 얼굴도 좋지만 스태프들도 보여주시기를 바람	회의록 첨부	○		
기타	<라디오 캠페인 내용 불만> 자녀 교육의 본보기에 대한 라디오 공익광고에서 신사임당의 사례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	회의록 첨부	○		

-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이희중 위원, 류용환 위원, 임재근 위원, 황혜진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김환균 사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위원장이신 최병욱 전 총장께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부위원장인 이희중 위원님께서 해주시기로 하고요

먼저 회의에 앞서 12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왔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시청자 게시판에는 총 6건의 의견이 올랐는데요. 진행자 불만 1건, 캠페인 내용 불만 1건, 기타 문의사항은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대전MBC 뉴스와 콘텐츠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시청자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더 좋은 의견 기다리면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이희중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한 해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촘촘하게 모니터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니 만큼 오늘도 대전MBC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임재근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임재근 위원

저는 두 가지 프로를 중심으로 시청을 집중했습니다. <오늘M>인데요. 화,수,목 3일간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의견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타 방송의 여러 프로그램들과 차별성이 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을 집중적으로 시청했습니다.

계룡문고 폐업 위기를 다루면서 26년 된 지역 향토 서점의 얘기를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전동 키보드 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보령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는 사례들을 추적하는 방송도 있었는데요. 보령 시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기한을 올해 12월 30일로 연장하면서 최근에 이런 방송 취재가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지속된 문제로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더 많은 고통스러울 텐데 겨울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악취 문제를 심각하게 잡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과 보령시간 양측의 취재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매립을 했던 매립자에 대한 취재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의아하고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추남' 같은 경우는 시사프로그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사프로그램으로 같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같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최근에 지역이슈를 하나 담았으면 하는 것은 오늘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의 수탁기관이 교체되는 그런 날입니다.

대전MBC 보도에서도 다뤘지만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단체가 인권센터를 수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기관의 대표자는 송촌장로교회의 박경배 목사인데 이분이 지난 지선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면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추남이나 대전MBC에서도 지역의 이슈로서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쇼 윤봉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윤봉길 의사를 다룬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특히 올해 윤봉길 상해의거 90주년을 맞아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컸지만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주제 였나 라는 측면입니다. 우선 오디션 프로그램은 여러 출연자들이 토너먼트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흥행 물이를 하는 편인데 비록 예선을 거치긴 했지만 방송에서는 본선만 보여주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시청률이라든지 흥행 물이에는 한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들과 관객들의 참여가 없었고, 다양한 장르들을 열어놓다 보니까 8개의 작품들이 다 각기 출품이 되었는데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심사 기준을 세워서 심사하는 데 애를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리기 위한 작품이라서 심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호평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체로 잘 봤다', '수고했다', '잘 만들었다' 평이한 심사평이 이어지면서 날선 비판이라든지 긴장감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아이돌그룹 트라이비의 공연이 있었는데 앞서 보여준 윤봉길 정신과는 이질감이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도했던 정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형식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건 아닌가... 차라리 본선에 뽑혔던 8개의 작품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한 편의 공연 형태로 펼쳐냈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대전MBC에서 주최한 라이프 사진전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대전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대전MBC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로컬리티 측면에서 담지 못한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작품은 철원 노동당사 작품 한 작품밖에 없었고요. 대전을 담은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획하게 될 때는 로컬리티도 함께 담았으면 하는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임재근 위원님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류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류용환 위원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를 보았습니다. 상당수는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맺는 답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청자 의견이 공개된 코너인 만큼 동일한 느낌을 받는 시청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답변 지연으로 불만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의견을 올릴 겁니다. 사실 접속을 해서 의견까지 올린다면 MBC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한 거고, 자기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이 때문에 지연된 답변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댓글이 없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통 차원에서 시청자 의견에 답변을 상세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

립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30년 전 김미리 PD가 진행한 '0시의 데이트' 녹음 테이프를 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답변은 오래돼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오래된 자료는 삭제한다는 답변이더라고요. 삭제해서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아카이브 차원에서 제작됐던 작품들은 연구 자료로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이와 관련된 배너 제목을 시청자 불만처리 결과라고 했는데 불만처리 결과보다는 시청자 의견처리 결과라고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불만만 올라오는 코너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방송사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또 그에 따른 창작의 고통도 있고 시간과 싸우는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시청자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수소 가격이 8200원에서 8800원대 인데 정부에서 수소차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가격을 반으로 한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말에 9900원으로 인상하고 해 넘어가면 1만2천 원대로 인상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수소차 동호인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항의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전이 수소차 보급률이 제일 큼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도 정부가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보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류용환 위원님께서 시청자의견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기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기배 위원

저는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되는 데 <쇼 윤봉길>을 보았습니다. 임재근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저와 비슷한 의견을 주셔서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대전MBC에서 후원 기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군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느낌이 더 강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역 내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인물의 기념행사를 지역 방송사가 참여해서 진행한 부분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데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예산군민 또는 충남도민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역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치 있는 인물이고 우리 지역이 그 만큼 잘 홍보되고 알려질 수 있다면 자긍심이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을 방송사가 함께 해 주셨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올해로 끝나는 건지 내년에

도 계속 이어지는 건지 하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인기클립 영상들을 봤는데 좋더라고요. 트램과 야간명소들을 봤는데 영상은 짧지만 다양한 정보 획득에 유용했습니다. <뉴.책.사>라고 아나운서와 기자의 일과를 브이로그 방식으로 영상을 올려놓으셨던데 시청자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 습니다. 뉴스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현장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인물의 브이로그를 담는 것에서 벗어나 방송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공유해 주신 부분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만 봤던 딱딱했던 인물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아 정서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제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화면을 통해서 뵈는 분들만 아니라 작가나 PD분들도 보여주신다면 시청자들이 훨씬 방송사와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네 아주 꼼꼼하게 보셨습니다. 다음은 마정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마정미 위원

12월 방송은 11월에 비해 크게 눈에 띄거나 달라진 프로그램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끼니멘터리> 프로그램은 일단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8일에 방송된 세상의 모든 끼니편은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 녹아 살고 있는가.. 그들의 먹거리는 어떠한가.. 그런 관점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여전히 <끼니멘터리> 제작진들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모든 보도를 전부 모니터 하지 않았지만 좋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특정 보도에 대한 지적은 아니고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뉴스에서 대전시가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심의가 의결되었다는 내용에서 정지 화면을 사용했고 동영상은 대전 출연 연구소를 한 바퀴 쭉 보여주는 한 컷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좀 더 생동감 있는 화면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 같은 긴급한 자료화면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기왕이면 발로 뛰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 이슈가 요즘 꽤나 뜨거운 것 같은데 대전MBC에서는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우연이 이전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대전에서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그런 보도들이 왜 빠졌을까 하는 생각과 과학 관련 출연연 보도들이 대전에서 상당히 많은

데 지역 뉴스로서 잘 다루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늘 얘기했지만 대전MBC 다큐멘터리가 정말 좋았었던거ですよ. <나는 상중이요>,<디펜스게임>,<나의 전쟁 레지스탕스>,<검은 동굴>,<격렬비열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잘 만들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하고의 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돈과 인력과 시간이 있으면 잘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 그것이 내년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충분한 인력은 단기간에 충족이 안 된다고 쳐도 재원이나 시간은 우리가 고민해서 배려하거나 노력해 보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마정미 교수님,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동 위원

저도 보도 중심으로 많이 봤는데요. 지역 뉴스는 꼭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보도도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점점 줄고 이쪽 의료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요.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 충남대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정원 부족 부분을 연결해서 한 보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전MBC는 단순히 보도자료나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분석 기사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0시 축제>같은 경우도 30억 이상 예산을 쓰일 예정인데 용역 결과에 대해 분석해서 실제로 정체성 없는 문제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12월에 지역 언론계에서 대형 폭탄 건인데 서구청장의 서구체육회 선거 개입 문제가 있었죠. 개입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보도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협박문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보낸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쉬운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한 기사가 KBS는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다른 일부 지역 언론들도 나갔는데 대전 MBC는 그 내용에 대한 보도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지역 언론이 공동 성명이라도 내면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인데 보도에서 빠진 것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자치 단체의 중장기 사업이 계속 바뀌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좋았던 것 같아요. 트램 같은 경우도 다시 무가선으로 돌아갔는데 이럴 경우 실제 2024년에 착공도 어렵다는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구조 자체의 문제와 지방

권력이 바뀌었을 때 중장기 사업들이 바로 바뀐 문제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김정동 의원님께서 보도 중심으로 많은 모니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미숙 위원

그 동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환균 사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올 해 고생하셨다고 인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격렬비열도 2부를 집중적으로 시청했습니다. 1부에서는 격렬비열도의 자연을 집중적으로 화질로 잘 표현해서 몰입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격렬비열도 앞에서 꽃게잡이 어선과 낚시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먹는 밥상에 올라오는 꽃게를 그렇게 힘들게 잡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셔서 조금 의미 있게 봤고요. 먹거리가 쉽게 밥상에 올라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격렬비열도를 위해서 오염된 바닷속을 청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폐어구 등 바닷속이 그렇게 오염돼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름다운 자연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바다를 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격렬비열도가 서해의 독도답게 여러 가지 자연생태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어민들의 노력들.. 등대와 중간 중간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2부도 몰입도가 있었습니다. UHD 화질로 만든 좋은 다큐멘터리를 내년에도 시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황혜진 위원

저는 오늘 연말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전MBC에서 방송 나간 것을 다시한번 되짚어보면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언론사로서 방향을 잘 잡고 곳곳하게 달려 나가는 모습에서 정말 감동이 있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고 월드컵 중계를 MBC에서도 하고 KBS에서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MBC를 찾아서 봤습니다. 내년에도 일반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도약하는 MBC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지역에 대전이라는 큰 도시 안에 작은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전광역시를 이룬 거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공동체나 지역이나 골목길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시고 그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아주는 대전MBC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로컬 브랜딩 설명회를 하고 왔지만 지역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이 아니라 로컬이라는 단어에 대해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시점인데 대전MBC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잡는데 언론사로서 길라잡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 짧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지역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또 황의원님께서 로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지난달에 <시시각각>과 <끼니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로컬리티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서울이 너무 익숙해서 서울 서부간선도로가 막히고 강남역 사거리가 막히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데 정작 충남대 앞에 차가 막히면 관심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시시각각 양곡법 문제를 다룬 아이템을 꼼꼼히 봤어요. 농민 회장, 대학 교수, 농림부 관계자가 나왔는데.. 지난번 농림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서울MBC나 KBS 일요일단 같은 방송에서 여야 국회의원 맞장 토론을 해야 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시시각각 아이템을 너무나 지역적인 문제만 다룬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작지만 우리 지역의 얘기도 시시각각에서 더 밀도 있게 다루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끼니멘터리도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인의 밥상, 허영만의 식객 같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그렇게 화려한 음식도 아니고 아주 소박한 음식을 찾아가면서 그냥 예전에 어머니가 먹던 밥, 우리 동네에서 고구마를 부쳐서 소금을 찍어 먹었다 라는 얘기 처럼 끼니멘터리가 음식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음식보다는 나열식으로 사람 위주로 가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그 지역 음식을 하는 건 신선하고 좋았지만 도입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이게 인물 다큐인지 헷갈린 면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다문화 여성들이 시집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됐고 우리 동네 사람이 돼서 그런 음식도 좋지만 조금은 특이하게 지역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나 그냥 아주 소박한 음식을 한번 관심 있게 발굴해 보는 것도 지역성을 살리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KBS를 보다가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한게 있는데요. ID를 보는데 밀양 유적지 하나를 10초 정도 보여주고,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수산대도 보여주던데 저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드론으로 찍어서 예쁘게 했는데 대전MBC도 군별로 모아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의 도움도 받기도 할 수 있고 태안 서천 금산 등 지역별로 나눠서 겨울에 어디가 예쁘다면 거기 설경을 한번 아이디어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표 간사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당국장님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먼저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M 이추남은 좋은 아이템들도 있고 한데 불법 폐기물 관련해서 불법 매립을 한 당사자를 취재 못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상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M이라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3일 방송하는데 저희가 지역성을 많이 살리지 못한 부분도 지금 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4개의 꼭지 중에서 3개는 타계열사 꼭지를 사용하고 하나씩은 로컬 꼭지들을 배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추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정체성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추남'을 지역의 로컬리티를 살려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윤봉길> 관련해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주제인지 말씀 주셨는데 충남문화재단과 예산군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제작에 들어간 건데요. 저희는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라는 큰 명분을 존중했기 때문에 행사를 기획했고 지자체와 문화재단에서 큰 틀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녹여낸 부분인데 처음에도 우려스러웠지만 주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맞는지 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결과물을 봤을 때 처음에 우려했던게 조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또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다음 후속작은 기획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 맞이해서 이벤트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우수했는데 일반 콘텐츠와 격차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력과 예산 문제와 마주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가능하면 다큐멘터리나 기획제작물 같은 경우는 내부 연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년에도 PD의 기획과 구성이 필요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작PD들 내부 연출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구성이나 작품성 측면에서 조금 더 퀄리티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렬비열도는 생태적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보존된 종이라든지 동식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계속 주목해서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아이템을 로컬 아이템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계속 유념을 하겠고요. 아이디 제작 건은 이번에도 신년 아이디를 제작하고 있지만 저희도 올해 한빛탑, 공산성, 대형댐 장면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회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자체별로 그런 명소들 앞으로 더 발굴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용 보도국장

지역의로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문제는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지역 이슈들을 다뤄야 할 게 지역 뉴스의 사명입니다. 지역 방송 뉴스의 가까운 미래 혹은 중장기적인 미래 그리고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최근 방송 뉴스는 속보성에 치우치는데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분석적인 기사에 대해 시청자들이 더 많은 공감을 해주시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대한 피드백을 보았을 때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형사건 사고에 빠르게 대응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이슈에 있어서 단순히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극복돼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석형 기사에 대해서 새해에는 더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이죠. 서구청장 체육회 선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 자체의 문제성도 있지만 대변인실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과거의 유산인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간사들이 엄중하게 항의를 했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기자회견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도 지침 문제를 보도를 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는데 뉴스시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하고 마무리 했는데 끝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스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추적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접근도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표면적 보도가 아니라 기자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더라도 분석형 기사들로 속성해 나갈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취재를 새해에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리포트가 아닌 스트레이트 기사의 영상들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전달 방식에 있어서 방송 뉴스이기 때문에 영상과 함께 기사가 이해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신 스트레이트는 주목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접근하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은 기사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데 영상이 뒷받침이 안 돼서 포기해야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래픽 처리 등 포맷의 변화를 통한 뉴스 전달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보도 문제는 그동안 우주 개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변하고 대전이 소외된 문제들에 대해 팔로우를 해왔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3개의 축으로 가는데 우주 발사체, 위성, 대덕특구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대통령 공약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담고 있어서 아직 미정이고요. 지역 이슈이기도 하고 대덕연구개발 특구라는 과학기술 도시의 특성도 있고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달 탐사선의 성공 여부를 가릴 마지막 궤도 안착식에 대한 제작이 예정돼 있고요. 제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12년 정도 오래 출입을 해서 과학 전문 기자라는 애기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지점들이 과학이라는 딱딱한 소재들과 일반적인 기초과학은 시청자들이 재미없어 하시거든요. 내년이 대덕특구단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과학강국 100년' 기획 뉴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과학 기술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지, 또 과학 대중화 관련 보도, 과학기술이 상용화까지 못 되고 있는 정책적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 뉴스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들을 재미가 없어도 내년에 과학 연구개발 특구 50주년에 맞물려서 지향해 나갈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새해에는 그런 유형의 기사들도 많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클립 부분은 보도국에서 만들어서 올린 것들인데 홈페이지 관리 주체가 보도국은 아니지만 홈페이지가 정제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시청자가 다가서는 한 창이기 때문에 인기 클립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보다는 홈페이지에서 소비되는 콘텐츠들은 장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 유튜브와 같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형태의 클립들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송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청자들은 아직도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쉽게 전달하고자 대학생 인턴들이 주축이 돼서 앵커 편을 만들었고 기자 편을 만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뒤에 있는 스태프들과 작가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체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친환경에 대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우리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 연료 정책에 대한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에 수소차 동호회 모이는 부분들은 저도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해서 어떤 정책으로 유도돼야 되는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미래전략실 부국장)

시청자 의견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는 불만 사항들을 올리는데요. 3시간 정도 보셨다면 3년 치는 보신 것 같습니다. 애정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해결을 하는데요. 다만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 가치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캠페인 소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시청자 의견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의도가 있을 테니까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저희는 전달했습니다 까지 답변을 달고 때로는 그쪽 담당 부서에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답변 이나 답변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품 발송 지연 문의는 담당PD에게 전달해서 직접 연락을 해드렸고요. 또 의견들을 무조건 저희가 흡수할 수 없는 애매한 의견들도 있어 무답변으로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잘 살펴봐서 오해 소지가 있거나 거만해 보이거나 또 소통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0시의 데이트 30년 전 자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입사하기 이전인데요. 당시에는 큰 릴레이를 돌려서 방송을 했고 꽤 고가라서 데일리 라디오 프로그램은 한 두 달 정도 보관했다가 다시 풀어서 쓰고 풀어서 쓰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찾아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너 이름을 시청자 불만이 아니라 시청자 의견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리하는 의미로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이희중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김환균 사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중 부위원장

올 한 해 좋은 뉴스와 또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보니까 정말 방송 쪽이 위기 같아요. YTN은 민영화시키면서 작별의 시기에 올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썽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고요. 광고 중단 얘기도 나왔고 또 이번 월드컵 중계가 물론 김성주 안정환이 잘했지만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청자들이 오히려 MBC에 결집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녹록치 않을 텐데 결국은 리더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 같아요. 정말 흔들리지 말고 독심 있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또 좋은 뉴스를 발굴하고 지역의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강한 대전MB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균 사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대전MBC에 작년 3월에 부임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쨌든 지역성과 지역의 가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지역성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만 추상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현장성입니다. 텔레비전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점은 현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MBC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물난리가 나도 어떤 화면들은 아무 문제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난리가 났는데 카메라는 안전한 곳에 다리를 뻗어놓고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라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느꼈을 공포 당혹감을 표현해야 방송사의 카메라라고 그래야 그 분들의 상황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인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전에 와서 놀랐던 게 대전 분들 스스로 대전을 노잼도시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쓰는 순간에 대전은 노잼도시가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이것을 발굴해 내는 것이 대전 시민과 충청도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방송사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재미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재미없다면 뭘 해야 재미있다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빨리 그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재미를 스스로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의미를 하나씩 덧붙여 가면서 풍성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희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관광 명소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 됐든 내년에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시각각은 토론 프로그램이인데 토론 프로그램도 잘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

런데 왜 재미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찌 됐든 지역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거고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좀 더 시청자 입장에서 이슈들을 정책 결정자라든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의 시각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인력 문제와 제작비 문제는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표 감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